

토론문

2025년 여름방학 지리학사 세미나

최경현

25.08.19

흑인 지리학 - 토론문

발제자가 제15장 「흑인 지리학」의 내용을 통해 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권력성과 배제 구조를 보편적 과제로 확장한 점에 대해 공감한다. 또한, 발제자는 흑인 지리학이 단순히 억압받은 특정 집단의 경험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지리학의 근본적인 인식론적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흑인 지리학의 문제의식을 동아시아의 전통적 자연관(무위자연, 상선약수)과 연결해 서양 근대 지리학에 의해 주변화된 다양한 지식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 점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발제문의 '흑인 지리학을 넘어 지리학의 다원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단순히 배제된 지식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경험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캐서린 맥키티릭(Katherine McKittrick)은 "흑인 여성 주체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그리고 전통적인 지리적 패턴에 대한 어떤 "고통스런 질문"을 제기하기 위한 한두 문장으로 간략히 취급"(McKittrick 2006, pp. 19-20, Cresswell 2024, p. 495에서 재인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흑인성의 경험을 선불리 다른 '차이'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며, 본 토론문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발제문에서 예시로 든 동아시아의 자연철학적 세계관은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고와는 다른 중요한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 지식이 주변화된 방식과, 흑인의 지리적 경험이 삭제된 방식 사이에는 중요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루스 윌슨 길모어(Ruth Wilson Gilmore)는 백인 우월주의를 "조기 사망에 대한 집단별로 차별화된 취약성...의 생산과 이용을 국가가 승인하고 초(超)법적 방식으로 자행되는 것"(Gilmore 2007, p. 247, Cresswell 2024, p. 487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했으며, 크리스티나 샤프는 노예선의 웨이크(물결)와 노예를 채운 선창이라는 공간을 통해 노예제가 남긴 죽음의 흔적을 분석했다. 이는 흑인들의 경험이 단순한 '인식론적 배제'를 넘어, 존재론적 말살과 체계적인 비인간화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공간 사상이 '비과학적'이거나 '전근대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면, 흑인들의 공간 사상은 그 존재 자체가 멸살되는 폭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 '흑인 지리학'과 '동아시아 지리학'을 동등한 사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경험의 역사적 깊이와 상처를 존중하며, 연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즈

(Woods)는 플랜테이션의 착취적 공간을 분석하였는데, 이와 동아시아의 자연이 경제 개발을 위해 파괴된 과정이 연결될 수 있는지, 서양의 자본주의가 플랜테이션을 통해 흑인의 신체를 착취한 것과 같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아시아의 자원과 노동력이 착취된 것 사이에는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을 것이다.

발제문이 제시한 지리학의 다원성 회복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본 토론문은 그 과제가 중요함과 동시에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이 각각의 억압받은 지식이 겪어온 고유한 폭력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흑인 지리학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차용하면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소외된 지리적 사상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때는 주의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연대가 될 때 비로소 지리학계는 유럽-백인 위주의 학문을 넘어서는 '다중우주적(pluriversal)' 지리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